2007년도 구비문학 분야 연구 동향

장유정(단국대)

1. 머리말
2. 분야별 연구 동향 개관
 2.1. 구비문학 일반론 및 설화
 2.2. 민요
 2.3. 무가
 2.4. 판소리
 2.5. 민속극
 2.6. 현대의 구비 문학 및 해외의 구비문학
3.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2007년도에 발표된 구비문학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를 알아보고 대략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발간되었던 전국 규모의 학술지에 수록된 소논문과 학위 논문, 그리고 단행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주된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1년 동안 이루어진 구비문학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는 일은 반성과 전망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연구의 성과를 가늠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도 전망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비문학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완전하게 살펴보는 일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모든 세부 전공의 논문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주의로 누락시킨 성과물

www.kci.go.kr

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혹시 과문한 탓에 연구 논저를 간과하였거나 논저자의 의도를 오해 내지 곡해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기왕의 관례를 따라서 각 분야별로 구비문학 연구 성과들을 나누어 서술하도록 하겠다.

2. 분야별 연구 동향 개관

2.1. 구비문학 일반론 및 설화

먼저, 구비문학 일반론을 다룬 논저는 수적으로 적었다. 『핵심 구비문학 개론』이라는 개론서와 북한의 구비문학을 다룬 한정미의 저서(『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가 일단 눈에 들어온다. 그 외에 구비문학회에서 기획한 '구비문학과 어린이'라는 주제로 신동흔의 「어린이의 삶과 구비문학, 과거에서 미래로」라는 논문이 간행되었다. 또한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서는 학술대회 때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서 『한국구비문학과 민간신앙의 지속과 변용』이라는 책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11명의 필자가 각각 잡가와 신민요, 일제강점기 민요의 전통성, 설화의 근대적 수용과 변용 양상 등을 다루고 있다. 주로 개화기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구비문학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비문학 일반론을 다룬 논저가 적은 것과 달리, 2007년 설화 연구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작품론으로는 권도경(『장보고 구비 전승의 한 맥락 고찰』), 김명선(『진묵설화 연구』), 김종군(『조선후기 대도설화 연구』), 김진(『처용설화의 해석학』), 이강엽(보은담의 유형과 의미), 이수미(아랑 설화의 현대적 변용 연구), 이인경(구비 '송사설화'의 재해석과 현재적 의미), 임재해(귀신설화에 포착된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과 귀신 인식), 장양수(『한국 요녀설화 연구』), 정규식(「평강왕과 온달모를 중심으로 본 <온달전>), 양은모(『풍수설화의 이해』)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김명선은 『진묵설화 연구』에서 그 시대의 아픔과 질곡을 함께 한 기층 민중들의 의식이 설화 문학의 형태로 발현된 양상을 살펴보았고

www.kci.go.kr

김종군은『조선후기 대도설화 연구』에서 '큰 도적'을 의미하는 '대도(大盜)'를 소재로 한 설화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김종군의 저서에서 '대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락부락하고 험상궂은 도적과는 다른 '선비'라는 점에서 이채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김진의『처용설화의 해석학』은 울산광역시의 대표 축제인 '처용문화제'가 잘못 시작되었으며, 시민들의 가치 정서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처용설화에 얽힌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이를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다음으로 이인경의 논의는 구비 '송사설화'를 고찰하여 이에 나타난 민중의식을 분석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찾아본 것이다. 즉, 송사설화의 분석을 통해 근대적 삼권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근대사회에서 지방관이 입법-사법-행정의 세 가지 영역을 두루 포괄하여 업무를 수행한 정황을 밝혔다. 결국 송사설화에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진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구비문학 연구의 현재적 의미 찾기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기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귀신이나 요녀를 다룬 논저로는 이수미, 임재해, 장양수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이수미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인 '원한과 해한'이 아랑 설화의 기본 구조임을 밝히고 아랑 설화가 현대소설과 영화로 전승된 양상을 고찰하였다. 마찬가지로 장양수도『한국 요녀설화 연구』에서 한국 요녀설화의 특성과 교훈을 밝히고 이를 현대소설과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하였다. 이는 단순히 작품론을 넘어서서 작품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까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재해는「귀신설화에 포착된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과 귀신 인식 에서 사람과 귀신이 만나는 양상을 5가지로 나누고 설화에 나타난 귀신의 존재에 관한 인식을 네 가지로 분석한 후에 귀신설화는 귀신과 인간의 만남 양상과 영향 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인간이 귀신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문법을 일깨워준다고 하였다. 일정한 작품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

www.kci.go.kr

거나 개별 작품 하나를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이러한 작품론은 그 분야의 연구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지역과 연관된 설화 연구로는 김재웅(『대구 경북지역의 설화 연구』), 김종국(경산지역 전설의 현장적 연구」), 최웅(『강원설화총람 7』, 『강원설화총람 8』) 등의 논저를 들 수 있다. 『강원설화총람』은 2006년도에 1권을 시작으로 2007년도까지 총 8권이 간행되었다. 이 책들은 강원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강원도 각 지역을 답사하면서 수집한 신화, 전설, 민담을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물이다. 2007년도에 나온 『강원설화총람 7』과 『강원설화총람 8』은 『강원설화총람』1권에서 6권까지의 증보판으로, 5권과 6권에 수록된 동해한 지역을 보완 조사하여 정리하고 여기에 태백시를 더한 것이다.

한편,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도 해외의 설화를 소개하거나 설화에 비교문학적 접근을 시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데 체렌소드놈의 『몽골의 설화』를 번역한 책이 해외의 설화를 소개한 책이라면, 박명숙(<한·중 제복에 산다형> 구비설화 연구」), 서대석(『한중 소화의 비교』), 최원오(창세신화의 창세원리에 담긴 인문정신-한국과 북아메리카 나바호 원주민의 창세신화를 중심으로) 등의 논의는 한국의 설화를 다른 나라의 설화와 비교한 연구로 주목할 만하다.

그런가하면 H.G. 아르노스의 『조선의 설화와 전설 : 개화기 독일인 아르노스가 기록한 조선의 이야기』는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설화와 전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개화기 때 독일인이 한국의 설화와 전설에 관심을 갖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논저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설화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이 밖에 김동훈의 『이주초기 문헌설화집』은 중국 내 조선 민족의 설화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최근에 증폭된 조선족에 대한 관심과 궤를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구비문학회의 기획주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물인 김종대(전래동화로 포장된 옛날이야기에 대한 일고찰」)와 박상란(「근대 불교잡지의 동화와 그 설화 전승상의 의의」)의 논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구비

www.kci.go.kr

문학을 다룸으로써 구비문학의 향유 주체로서의 어린이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2. 민요

민요는 가사와 선율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음악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모두 가능하다. 양자를 다 아우르면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전공에 따라 연구 결과물도 달라지는 양상을 드러냈다. 2007년도 민요 연구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국민요학회에서 엮은 『농산노동요연구』Ⅰ과 Ⅱ이다. 2006년도의 『유희요연구』와 『수산노동요연구』에 이어서 『한국민요학』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농산노동요와 관련된 논문만을 선별하여 묶어낸 것이 『농산노동요연구』 두 권이다.

그 외에 민요에 대한 총체적인 논저로는 북한의 민요를 다룬 김영운·김혜정·이진원의 『북녘 땅 우리소리 악보자료집』이 있다. 얼마 전부터 북한의 구비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책은 문화방송과 서울음반이 발간한 『북녘 땅 우리소리』 CD 음반 수록 악곡을 채보한 악보자료집이다. 이 음반은 1970년부터 1983년 사이에 북한지역에서 음악 분야 학자들이 채록한 6,000여 곡의 민요 중에서 선별한 민요 352곡을 수록하고 있다.

'구비문학과 어린이'라는 기획주제의 일환으로 구비문학회에서 이루어진 김헌선·시지은(「어린이들의 생활문화와 민요-현대 구전동요 연구 시론」)과 편해문(옛 아이들 노래를 오늘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길 찾기)의 논의는 아이들에게 우리 소리를 찾아주는 방법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논의가 단순히 현 상황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우리 노래를 돌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강등학(「1945년 이전 시기 통속민요 아리랑의 문화적 성격과 가사의 주제양상」), 권오경(한·일 <모심는 소리>의 노랫말 구성법과 가창방식 비교 연구), 이영식(장례요

www.kci.go.kr

의 존재양상과 사설 연구」), 이옥희(대화체 민요의 존재양상과 소통미학), 장유정(민요의 웃음 창출 방식과 그 계승 고찰-<엿장수 타령>을 중심으로)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강등학은 아리랑이 통속적 성향을 보이면서 그 주제도 향토민요 아리랑에 비해 가정문제의 비중이 빈약해지고 이성문제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였으며 권오경은 한국의 <모심기 노래>와 일본의 <田植歌>를 노랫말 구성, 가창 방식, 표현법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영식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장례요의 기능별, 지역별 존재양상과 사설구성원리를 살피고 장례요의 활용양상까지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이옥희는 대화체 민요의 소통미학으로 다성성과 상호성을 지적하였고 장유정은 <엿장수 타령>을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일제시대 대중가요 갈래 중의 하나인 만요가 <엿장수 타령>을 계승한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음악적인 연구를 소략하게 다루거나 처음부터 배제한 채, 그 사설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학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예이다.

그런가 하면, 음악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김혜정(「산아지타령 계열 악곡의 음악적 존재양상과 의미), 서정매(선율과 음정으로 살펴본 밀양아리랑), 손인애(『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신소희(경기민요 창부타령에 관한 연구), 최헌(정선아라리의 선율구조 분석연구 , 한국 모심기 소리의 선율구조), 최진(가야금산조 경드름의 음악적 특성 고찰」), 이소영(일제강점기 신민요의 혼종성 연구」)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신소희와 최진, 이소영의 논문은 석·박사학위논문으로 음악학 내지는 국악과 연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민요의 음악적 연구가 개별 작품 내지는 작품군에 대한 연구로 심화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민요 연구에서는 가사와 선율 외에 민요가 연행되는 현장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금은 민요의 삼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사, 선율, 기능 중에서 기능 부분이 탈각되었으나 예전에는 '기능'이 민요를 구성하고 연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에 민요의 현장을 재구하여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박관수(「민요의 향유론적 연구 방법에 대한 시론)와 변성구(『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

www.kci.go.kr

구』)의 논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민요의 속성상, 특정 지역의 민요를 연구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재욱(『영남전래민요집』)과 편집부(『경기향토민요』)에 의해 영남 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민요집이 발간되었으며, 서영숙(「충청북도 농업노동요의 전승양상 분석」)과 신은주(「경상북도 밭매는소리의 유형 분석」)는 각각 충청북도 지역과 경상북도 지역의 농업노동요를 대상으로 하여 그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민요 관련 학술지인 『한국민요학』 제20집에는 교육과 민요를 연관시킨 일련의 연구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강민정(「학교 교육을 통한 향토민요의 전수교육 실태 조사」), 박정옥(「향토민요 가창방식의 교육적 활용 방안-경기지역 민요 가창방식을 중심으로), 조경숙(「향토민요의 교육활용 방안-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민요를 중심으로)의 논의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지금으로서는 그 실효를 예측할 수 없으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음악에 익숙하고 친숙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음악을 몸에 배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소리에 길들여질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는 의의가 있다.

최근의 연구 경향 중에 하나는 인문학을 문화콘텐츠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이다. 민요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2007년에도 민요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DB(Data Base)화 하고 이를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한 일련의 논문들이 간행되었다. 이성훈(민요 웹사이트 구축 현황과 문제점」), 이윤선(해물유희요의 스토리텔링과 섬사람들의 세계관), 장유정(「일제시대 유성기 음반 곡종의 실제와 분류」), 이창식(「아리랑, 아리랑학, 아리랑콘텐츠)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성훈과 장유정의 논의가 민요 자료의 DB화와 관련이 있다면 이윤선과 이창식의 논의는 민요를 문화콘텐츠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 무가

무가는 노래이면서 춤이자, 연극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는 그야말로 종합예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무가 연구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www.kci.go.kr

각 지역의 마을굿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분석한 일련의 책이다. 나경수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발간한 8권의 책(『곡성군 마을굿』, 『광양시 마을굿』, 『구례군 마을굿』, 『담양군 마을굿』, 『장성군 마을굿』, 『진도군 마을굿』, 『호남의 망자환갑굿』, 『화순군 마을굿』)은 모두 각 지역의 무가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개관한 것으로 그 지역의 무가를 보존하고 소개하며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가도 지역별로 다른 특징을 노정하는 바, 지역별로 무가 연구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장 풍부한 양의 무가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무가의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김미숙(「<삼공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집'을 중심으로), 김민찬(제주 서사무가의 문화수용 양상), 민윤숙(「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식성갈등 연구」), 이수자(제주도 '송당 신화 축제'의 의의와 계승의 필요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김미숙은 논문에서 가믄장아기가 '부(富)'를 이루고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자신을 배척한 부모와의 화해라는 자아완성의 터전이 '집'이라는 공간에 있음을 밝혔다. 이수자의 논의는 '송당 신화'를 문화산업의 원천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마을을 지켜주는 백주할망이라는 여신에 관한 신화인 '송당 신화'를 신화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축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다음으로 동해안 지역의 무가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윤동환(『동해안 필사본 무가』), 윤용준(동해안 별신굿의 동살풀이 장단 연구」), 이영선(동해안별신굿 무악장단 연구), 장국강(「한국과 중국의 무속신 비교연구 : 동해안 별신굿과 환단신을 중심으로), 천혜숙(『동해안 마을의 신당과 제의』), 황루시(「강릉지역 여서낭신화 연구) 등의 논의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천혜숙의 논저는 네 개의 동신당과 한 개의 산신각을 대상으로 하여 각 신당의 현황은 물론 제의적 성격과 특징을 다룬 것이다. 장국강의 논문은 동해안 별신굿과 중국의 환단신을 비교하여 그 신격과 무속신의 문화적·세계적 특징 등을 서술한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런가 하면, 윤용준과 이영선의 논문은 무가에 대한 음악적인 접근을 시도한 석사논문으로 무가 연구가

www.kci.go.kr

문학적인 측면과 연행론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음악적인 분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황루시의 논의는 강릉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여서낭 신화를 분석하여 지역문화의 특징을 밝힌 것이다. 여서낭 신화의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성황사의 여성황 중 연화부인 신화는 자연신에서 인격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고 동시에 지역 내 권력구조의 갈등을 보여준다. 둘째, 전형적인 영웅신화의 면모를 보이는 연화부인은 수신(水神)의 흔적을 지닌 인격신인데 신라 말 경주에서 이주한 김주원의 후손들이 강릉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억울한 죽음의 원한을 풀어주고 공동체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서낭 신화들이 있다.

전라도 지역의 무가를 다룬 연구 성과로는 박미경·박주언의 『진도 세습무 박씨가계도 재구성 연구』(민속원, 2007)와 이영금의 「전북지역 무당굿 연구 : 정읍 세습무 전금순 굿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진도 세습문 박씨가계도』는 박병천, 박보아 등 박씨 가계의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박씨가계도'를 재구성한 연구 논저이다.

서울굿을 다룬 논저로는 홍태한(「서울 마을굿의 축제적 성격」,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의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 마을굿의 축제적 성격」은 구비문학회의 기획주제인 '구비문학과 현실문화 만들기'의 일환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홍태한은 여기에서 서울 마을굿이 지니고 있는 고정성과 변화성에 주목하여 이를 토대로 서울 마을굿의 축제적 모습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에서는 40여곳 이상에서 전승되는 서울굿의 양상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2.4. 판소리

판소리에 대한 연구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판소리 학회는 2007년도에 두 개의 주제를 기획하였었다. <보성소리 전승과 발전 방향>과 <판소리의 지역문화화와 세계화>가 그것이다. 먼저 기획주제의 성과물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보성소리 전승과 발전 방향>이

www.kci.go.kr

라는 주제 하에 김진영(지역 문화로서의 보성 판소리 발전 방향), 배연형(「보성소리와 장재백 춘향가의 형성과정), 정병헌(보성소리의 판소리사적 위상)의 논의가 있었다. 김진영은 논문을 통해서 '보성 판소리 박물관'의 건립을 제안하였고 배연형은 춘향가 장재백 소리책(1925) 등을 중심으로 보성소리 <춘향가>의 위상과 의의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병헌은 보성소리의 정체성을 구명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서 논문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판소리의 지역문화화와 세계화>에서는 김경희(<춘향가>를 통해본 김소희 판소리의 음악적 지향), 김인숙(명창 김여란의 판소리관과 예술세계), 서종문(판소리 단가에 나타난 신재효의 세계인식), 손태도(지역 문화로서의 고창 판소리 발전 방안」), 최동현(「명창 김이수의 생애와 예술)이 참여하여 일련의 성과물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성과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김경희는 만정판 <춘향가>가 유파의 경계 없이 김소희가 사사한 여러 스승의 소리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김소희의 음악적 지향이 '새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정통 판소리의 전통을 잇는다'는 신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서종문은 신재효의 작품을 통해서 그가 추구한 것이 합리주의적 관점이며, 이는 오늘날 판소리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도 주효하다고 하였다.

기획주제 이외의 연구 성과로는 먼저 김동건의 「신자료 <호남기담> 연구 를 들 수 있다. 107장 214면의 한글 필사본이자 <춘향전>의 이본인 <호남기담>은 독특한 사설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타 <춘향전>과 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김동건은 <호남기담>이 나열이나 어려운 문식을 제거하고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였으며, 골계적이고 비속한 사설도 제거하는 특징을 드러냈다고 지적하였다.

작품별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춘향가>와 관련해서는 서유석(20세기 초반 활자본 춘향전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오윤선(「<춘향전> 영역본의 고찰), 최혜진(「김소희 바디 <춘향가>의 성립과 변화 양상) 등의 논의가 있었다. 다음으로 <흥보가>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은영(판소리 흥부가 <가난타령> 연구)의 연구가 있고 수궁가 연구로는 류수열(「<별주부전>

www.kci.go.kr

의 교육적 체험을 위한 하이퍼픽션 구축방안 연구」), 서정민(정응민 <수궁가> 중 초입 네 대목 연구), 안현미(「판소리 <수궁가>에 대한 연구)의 논의가 있다. 그 외에 <적벽가>에 대한 논의로는 양옥경(판소리 <적벽가> 침입대목의 음악적 구현 양상」)과 정충권(<적벽가>의 형성과 난리체험)의 논의를 들 수 있고 <심청가> 연구로는 이유진(판소리 <심청가>의 형성에 대한 재론)의 논문이 있다.

위에 제시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유진은 <심청가>가 관음사 연기설화와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고 오윤선은 한국내외에 출판된 <춘향가>의 영역서를 개관하고 삽입시가를 중심으로 영역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런가 하면, 서정민과 양옥경은 판소리의 음악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서정민은 정응민의 <수궁가> 중에서 초입 네 대목의 사설과 음계를 밝혀 그 음악적 특징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 류수열의 작업은 기존의 판소리를 하이퍼픽션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문화콘텐츠 연구 영역과 궤를 같이한다.

판소리의 현재적 의미 내지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은 2007년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 본 류수열의 작업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김기형(판소리 경연대회와 축제), 김연(창작판소리 발전 과정 연구), 손태도(판소리 계통 공연 예술들을 통해 본 오늘날 판소리의 나아갈 길), 이윤선(연행방식을 통해서 본 남도소리의 축제적 성격), 황혜진(판소리의 매체교육적 의의) 등의 논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윤선과 김기형의 논의는 구비문학회의 기획주제였던 <구비문학과 현실문화 만들기>의 일환에서 이루어졌다. 이윤선은 남도소리의 기본 구조를 '끼워넣기'와 '겨루기'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 겨룸이 심화되면 밀고 당기기가 격화되면서 난장의 카타르시스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김기형은 판소리의 특징을 놀이성, 일탈성, 전복성의 세 가지로 지적하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판소리를 축제의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또랑광대콘테스트'가 축제와 경연이 병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www.kci.go.kr

보여준 예라고 평가하였다.

2007년도 판소리 연구는 전반적으로 판소리의 사설을 중심으로 한 논의보다는 판소리에 음악적으로 접근하거나 각 명창들의 생애나 음악 등을 다룬 논저가 많았다. 앞서 소개한 논저 중에도 판소리에 음악적으로 접근한 예가 많았고 권은경(판소리 장단의 달고 맺음에 관한 연구 : 자진모리 장단을 중심으로」)과 조용수(「판소리 고법의 리듬에 관한 연구)의 학위논문, 이보형(유파 개념 중고제와 악조 개념 중고제」)의 논의도 판소리의 음악적인 특징을 분석한 논의에 해당한다.

한편, 김인숙(명창 김여란의 판소리관과 예술세계)과 배연형(김연수의 판소리 사설, 그 생명력의 원천)의 소논문과 신은주(「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바디 연구」)의 박사학위 논문은 각 명창들의 생애와 소리를 살펴본 논문이다. 특히 신은주의 박사학위 논문은 심정순의 바디를 중심으로 그 동안 연구가 미미하였던 중고제를 살펴본 것이다. 신은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판소리 중고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다른 바디들과 주제의식이 다른 점, 둘째, 상대적으로 고(古)형태의 사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 셋째, 다른 유파의 창자들에 비해 평조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판소리와 관련된 단행본으로는『판소리문화사전』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위에 제시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판소리 연구는 기존의 판소리 연구와 더불어 판소리의 현재적 의미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 이를 집약한 단행본들도 출간되리라 기대한다.

2.5. 민속극

성과면에서 볼 때, 민속극 분야의 연구는 구비문학 연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미미하였다. 소논문으로는 '여성농악단'을 다룬 권은영의 논문과 '해서 탈춤'을 다룬 전경욱의 논문만을 찾을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민속극 연구에 매진하였던 전경욱은 이 논문에서 해서 탈춤의 악사가 전문적 연주자로서 연희자와 분리되어 있고 앉아서 반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

www.kci.go.kr

였다. 또한 그동안 그 유래가 논란이 되었던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재인촌의 재인들이 양수척의 후예임을 입증한 것이 이 논문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경욱은『한국의 가면극』에서 자연환경 및 문화의 발달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어 발달한 가면과 가면극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현지 조사를 통해 채록한 실감나는 대사들과 99컷에 이르는 가면극 관련 도판 등은 일반 독자가 가면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가면극 연구의 결정판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전경욱의『한국의 가면극』은 한국 가면극에 관한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병훈의『진주 오광대 탈놀음』은 '남성문화재단'과 더불어 진주 문화 찾기의 일환에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우리의 놀이문화원형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거나 사라진 놀이를 정리하여 총 100여개의 놀이를 선정하여 유사 놀이를 소개 및 비교하고 이를 부르는 명칭과 놀이방법, 놀이 도구, 놀이 규칙 등을 정리하였다. 즉 현대에 전하는 놀이의 원형과 그 변모 양상, 그리고 놀이의 사회성과 문화성 등에 대해 정리하여 놀이 장면 이미지 및 동영상 100편을 제작하였던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우리의 놀이문화 원형을 찾아서88-탈놀이』이다.

김호석의『강령탈춤 음악본』은 탈춤의 악보를 정리한『탈춤 음악본 총서』시리즈 중의 하나이다. 김호석은 1975년부터 약 30여 년간 탈춤분야에 종사하여 왔던 경험과 전승활동을 바탕으로 펴낸 것으로『강령탈춤 음악본』은 반주음악과 노래의 실질적인 전승교육에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상해와 정승모의『하회마을』은 직접적으로 민속극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회마을의 풍경, 건축, 민속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민속극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민속극 연구소 소장이며 1인극 배우인 심우성은 전통문화에 대한 수필과 논문을 엮어서『전통문화를 찾아서』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단순한 학술서적이 아니라 오래 동안 민속학의 현장에 몸담고 있

www.kci.go.kr

었던 심우성이 한국무용, 민속학회, 사물놀이에 대한 감상과 더불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감상을 실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천민 예인의 삶과 예술의 궤적』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한국문화사』시리즈 중의 하나로 기생, 무당, 광대, 유랑 예인의 네 유형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사료를 바탕으로 복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곽병창(『연희극 축제』)과 심상교(『한국 전통연희론』)의 저서는 전통 연희의 현재적 의미 찾기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곽병창은 한국 현대연극이 전통연희를 계승한 양상을 살피고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한 언급과 '소리도시' 전주를 위한 기본 구상을 밝히고 있다. 심상교는 저서에서 한국의 전통연희라고 할 수 있는 굿, 탈놀이, 판소리에 대한 연극학적 관점의 논의와 한국적 축제, 전통의 문화 콘텐츠화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관점과 달리 탈놀이를 비극적 관점에서 논의했으며 기층민들의 정신세계를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탈놀이에 표현된 여성관련 요소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2.6. 현대의 구비 문학 및 해외의 구비문학

현대의 구비문학의 연구는 구비문학 연구의 영역 확대와 현재적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007년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는 코미디와 대중음악 분야이다. 그 외에 TV 애니메이션이나 현대의 아동극, 게임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강현구(「아동용(가정용) TV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경쟁력)가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이나 인문적 상상력과 관련된 창작방법론을 모색하였다면, 김경희(현대의 아동극에 나타난 이야기꾼과 이야기 마당)는 현대 아동극에 등장하는 이야기꾼과 악사의 역할, 그리고 공연 장소를 살펴, 앞으로 아동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나주연(게임의 구비문학 활용과 그 가치)은 구조와 내용의 측면에서 구비문학과 게임을 접목할 방법을 모색하고 바리공주를 활용한 액션어드벤처게임 시나리오의 시안까지 작성하였다.

코미디 연구는 한국웃음문화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와 그 성과물을

www.kci.go.kr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에 창립한 한국웃음문화학회에서는 매년 두 권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2007년도에 한국웃음문화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웃음문화』를 보면, 코미디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웅래(「코미디의 숙명과 코너의 수명), 김재화(코미디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행복감 증진효과 연구-풍자코미디를 중심으로), 신상훈(한국형 스탠드 업 코미디 만들기」), 심우장(TV 속 이야기판과 웃음-토크쇼 <야심만만>, <불량아빠클럽>, <놀러와>를 중심으로)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김웅래의 글은 학술논문이 아니라 코미디 코너의 흥망성쇠를 비평적으로 다룬 글이지만 현재 코미디계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재화는 설문을 통하여 코미디 프로그램의 주시청자인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코미디 수용 반응과 영향을 살펴보고 코미디극에서 나타나는 대리만족과 유쾌감 증진이 수용자들의 행위 양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수용자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신상훈은 논문에서 스탠드 업 코미디의 원형을 소개하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한국식 스탠드 업 코미디로 정착시킬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심우장은 공중파 TV의 대표적인 토크쇼들을 분석하였다. 토크쇼에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판의 속성을 들어서 토크쇼에서 구술문화적인 요소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원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판'의 문화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한편, 대중음악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기획한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모색과 전망'도 대중음악 연구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영미(방송극 주제가의 인기 경향과 흐름), 박준흠(한국대중음악사에서 인디음악이 갖는 의미), 김창남(민중가요의 대중음악사적 의의), 이소영(갈래간 경계 넘기와 음악적 혼종성-김송규의 신민요를 중심으로」), 장유정(「대중가요를 통해 본 1960년대의 서울문화」), 박애경(1940년대 군국가요에 나타난 젠더 이미지와 젠더 정치), 이동순(1950년대 한국대중음악사의 형성과 전쟁 테

www.kci.go.kr

마의 수용)의 논의가 있다.

2007년도에는 시대나 연구 방법을 달리하여 대중음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영미가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방송극 주제가를 시대적으로 개괄하고 있다면 박준흠의 논의는 이제까지 관심 밖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인디음악을 한국대중음악사의 자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오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논의 모두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역사적 흐름을 개괄하였거나 사료를 제시한 것에 머무르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진전된 논의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김창남은 민중가요가 지니고 있는 대중음악적 성격을 테크놀로지의 사용, 산업의 측면, 소비의 측면에서 살피고 민중가요와 대중가요의 이분법이 잘못되었으며 민중가요도 대중음악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소영은 일제시대 작곡자인 김송규의 작품을 음악적으로 분석하여 그 음악적 특징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김송규의 신민요 창작이 민요와 재즈의 음악 어법을 융합시키는데 성공하여 그만의 독특한 신민요 양식을 확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장유정은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대중가요의 가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가사 분석을 통해서 대중가요에 나타나는 서울 문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특징적인 모습을 고찰하였다.

그런가 하면, 박애경은 1940년대의 군국가요 분석을 통해서 군국가요에 나타난 젠더의 배치와 젠더 이미지가 남성과 여성을 각각 황민으로 호출하기 위한 젠더 정치의 일환인 동시에 군국의 이념을 정감적으로 전달하여 대중적 호소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동순은 광복 후에 대구에 설립된 오리엔트 음반회사의 운영자였던 이병주 선생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1950년대 한국대중음악사의 형성 과정을 밝혔다.

이 외에도 대중서사학회에서 특집으로 ‘1950년대의 대중예술’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소영이 195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이국성 을 음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장유정은 당대의 사료를 중심으로 라디오와 유성기를 둘러싸고 형성된 공공영역(Public domain)을 살펴보고 이러한 대중매체의 출현으로 변화된 음악 문화의 변화 양상을 취향 공동체의 성립이라는 차원에

www.kci.go.kr

서 고찰하였다.

한편, 각 분야별로 이루어진 비교연구 외에 해외의 구비문학 자체를 소개하거나 해외 구비문학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 남성호(일본축제에 나타난 신들림의 표상화」)는 무속, 슈겐도를 중심으로 한 축제제의에 나타난 신들림의 표상화에 대해 고찰하였고 박환영(몽골의 나담 축제와 유래담 고찰)은 몽골의 대표적인 전통축제이면서 민속축제인 나담 축제와 관련이 있는 유래담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 이춘근(『러시아 민속문화』), 최용수(『아시아의 무속과 춤-일본·인도』, 『아시아의 무속과 춤-중국』)은 각각 러시아, 일본, 인도, 중국 등의 민속문화와 무속 등을 소개하였다.

3. 맺음말

이상으로 2007년도에 이루어진 구비문학 연구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2007년도 구비문학 연구는 새로운 연구 영역의 개척과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성과물을 내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 전망한다. 2007년도에 이루어진 연구의 특징으로는 현대 대중문화의 각 영역을 구비문학 연구의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것과 문화콘텐츠의 원천 소스로써의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중가요가 민요의 현대적인 모습이라면, 코미디는 설화의 현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구비문학의 '현대적 모습과 의미 찾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라져가는 구비문학을 조사하고 채록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과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탐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비문학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언급하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구비문학의 본령은 문학이고 따라서 구비문학 연구에서 문학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고 정확한 해석과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비문학의 본령이 문학이라고 해서 문학 텍스트만을 연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비문학은 그 특성상 여타 장르와는 다른 접근과 독해법이 요

www.kci.go.kr

구된다. 애초부터 구비문학은 그 존재의 목적이 문학적 우수성을 발현하는 것에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구비문학은 민중들의 삶과 결부되어 그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비문학 연구에서 수용자나 연행 현장, 문화적 맥락 등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가령, 민요나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연구한다고 할 때, 단지 노랫말 분석에만 그치고 만다면 유명한 시인이 쓴 시에 비해서 문학적 형상화가 뛰어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민요나 대중가요 중에도 물론 문학적 형상화가 뛰어난 노랫말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사실상, 민요나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연구할 때, 정치한 문학적 해석만큼 중요한 것은 선율을 들어보고, 작사자나 작곡자를 알아보고 청자 내지는 수용자를 살펴보고, 어떤 현장과 시대적 맥락에서 이러한 노래가 불렸는지를 고찰하는 일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텍스트를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그 때문에 구비문학 연구를 하려면 연구자 스스로가 멀티플레이어가 되든지, 아니면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학문적 경계나누기에서 벗어나 소통과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구비문학 일반론 및 설화
(단행본)
권도경,『장보고 구비 전승의 한 맥락 고찰』, 한국학술정보, 2007.
김동훈,『이주초기 문헌설화집』, 보고사, 2007.
김명선,『진묵설화 연구』, 보고사, 2007.
김재웅,『대구 경북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7.
김진,『처용설화의 해석학』, UUP, 2007.
데 체렌소드놈 지음, 이안나 옮김,『몽골의 설화』, 문학과지성사, 2007.
동양학연구소,『한국구비문학과민간신앙의 지속과 변용 : 개화기에서 일제 강점기까지』(동양학 학술총서 2),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류종목,『우리민속 들여다보기』, 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박환영,『한국민속학의 새로운 지평』, 역락, 2007.
서대석,『한중 소화의 비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서해숙,『지역민속의 전승체계와 활용』, 민속원, 2007.
양은모,『풍수설화의 이해』, 문경출판사, 2007.
이경채,『설화: 역사를 뒤바꾼 치명적 말실수』, 현문미디어, 2007.
임동권,『민속문화의 전승』, 민속원, 2007.
임재해,『마을민속 조사연구 방법』, 민속원, 2007.
장양수,『한국 요녀설화 연구』, 국학자료원, 2007.
정인섭 지음, 최인학 옮김,『한국의 설화』,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최운식,『민속문화의 조명과 새지평 : 남강 김태곤의 생애와 학문세계 조명』, 민속원, 2007.
최웅,『강원설화총람 7 : 동해안 지역 1』, 북스힐, 2007.
최웅,『강원설화총람 8 : 동해안 지역 2』, 북스힐, 2007.
편집부,『남도민속연구』제15집, 남도민속학회, 2007.
편집부,『핵심 구비문학개론』, 포유, 2007.
표인주,『남도 민속의 이해』,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표인주,『축제민속학』, 태학사, 2007.
한국학연구원부설민속학연구소,『마을민속 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7.
한정미,『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민속원, 2007.
H. G. 아르노스 지음, 송재용 옮김,『조선의 설화와 전설 : 개화기 독일인 아르노

www.kci.go.kr

스가 기록한 조선의 이야기』, 제이앤씨, 2007.

(소논문)
김종군, 『조선후기 대도설화 연구』, 박이정, 2007.
김종대, 「전래동화로 포장된 옛날이야기에 대한 일고찰」, 『구비문학연구』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김준형, 「조선후기 이야기판과 이야기꾼」, 『웃음문화』4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류정월, 「성소화 텍스트 향유와 성적 정체성」, 『구비문학연구』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박명숙, 「<한·중·제복에 산다형> 구비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박상란, 「근대 불교잡지의 동화와 그 설화 전승상의 의의-『불교』 '소년란'의 동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박영정, 「만담 장르의 형성과정과 신불출」, 『웃음문화』4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손태도, 「서울 지역 재담소리의 전통과 박춘재」, 『웃음문화』4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신동흔, 「어린이의 삶과 구비문학, 과거에서 미래로」, 『구비문학연구』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심우장, 「이야기하기의 구술성에 대하여」, 『구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제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이강엽, 「보은담의 유형과 의미」, 『고전문학연구』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이은경, 전래동화 재화과정에 나타난 해학적 요소와 문제점-전집류를 중심으로 , 『구비문학연구』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이인경, 「<구복여행>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해석과 교육적 활용」, 『고전문학연구』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이인경, 「구비 '송사설화'의 재해석과 현재적 의미」, 『구비문학연구』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이지영, 「용사신 승천담의 측면에서 본 <꿩과 구렁이>」, 『고전문학연구』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임재해, 「구비문학의 축제성과 축제에서 구비문학의 기능 , 『구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임재해, 「귀신설화에 포착된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과 귀신인식」, 『구비문학연

www.kci.go.kr

구』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정규식, 평강왕과 온달모를 중심으로 본 <온달전>, 『한국문학논총』46집, 한국문학회, 2007.
최원오, 「창세신화의 창세원리에 담긴 인문정신-한국과 북아메리카 나바호 원주민의 창세신화를 중심으로 , 『구비문학연구』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학위논문)
김종국, 「경산지역 전설의 현장적 연구」, 대구대대학원 박사논문, 2007.
이수미, 「아랑 설화의 현대적 변용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2. 민요
(단행본)
김영운·김혜정·이진원, 『북녘 땅 우리소리』, 민속원, 2007.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2007.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민속원, 2007.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민속원, 2007.
이재욱, 『영남전래민요집』, 경인문화사, 2007.
편집부, 『경기향토민요』, 경기도국악당, 2007.
한국민요학회 엮음, 『농산노동요연구』Ⅰ, 민속원, 2007.
한국민요학회 엮음, 『농산노동요연구』Ⅱ, 민속원, 2007.

(소논문)
강등학, 「1945년 이전 시기 통속민요 아리랑의 문화적 성격과 가사의 주제양상」, 『한국민요학』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강민정, 「학교 교육을 통한 향토민요의 전수교육 실태 조사」, 『한국민요학』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권오경, 한·일 <모심는 소리>의 노랫말 구성법과 가창방식 비교 연구」, 『한국민요학』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김영희, 「밀양아랑제 전승에 대한 비판적 고찰-돌아오지 못하는 아랑의 넋, 구천을 떠도는 그녀의 목소리」, 『구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김헌선·시지은, 어린이들의 생활문화와 민요-현대 구전동요 연구 시론」, 『구비문학연구』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김혜정, 「산아지타령 계열 악곡의 음악적 존재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박관수, 「민요의 향유론적 연구 방법에 대한 시론」, 『한국민요학』제20집, 한국민요

www.kci.go.kr

학회, 2007.
박정옥,「향토민요 가창방식의 교육적 활용 방안-경기지역 민요 가창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민요학』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서영숙,「충청북도 농업노동요의 전승양상 분석」,『한국민요학』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서정매,「선율과 음정으로 살펴본 밀양아리랑」,『한국민요학』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신은주,「경상북도 밭매는소리의 유형 분석」,『한국민요학』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양영자,「제주도 <사데소리>의 존재양상과 의미」,『한국민요학』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유명희,「<논매는 소리>를 통해 본 가평민요권의 특성」,『한국민요학』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이성훈,「민요 웹사이트 구축 현황과 문제점」,『한국민요학』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이옥희,「대화체 민요의 존재양상과 소통미학」,『한국민요학』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이윤선,「해물유희요의 스토리텔링과 섬사람들의 세계관」,『한국민요학』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이창식,「아리랑, 아리랑학, 아리랑콘텐츠 ,『한국민요학』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장유정, 민요의 웃음 창출 방식과 그 계승 고찰-<엿장수 타령>을 중심으로」,『구비문학연구』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장유정,「일제시대 유성기 음반 곡종의 실제와 분류」,『한국민요학』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정우택,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가극 <아리랑> 공연과 그 의의」,『한국민요학』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조경숙,「향토민요의 교육활용 방안-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민요를 중심으로」,『한국민요학』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최헌,「정선아라리의 선율구조 분석연구」,『한국민요학』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최헌,「한국 모심기 소리의 선율구조」,『한국민요학』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편해문,「옛 아이들 노래를 오늘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길 찾기」,『구비문학연구』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학위논문)
신소희,「경기민요 창부타령에 관한연구」, 단국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www.kci.go.kr

이소영, 「일제강점기 신민요의 혼종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07.
이영식, 「장례요의 존재양상과 사설 연구」, 강릉대대학원 박사논문, 2007
최자운, 농악대 고사소리의 지역별 특성과 변천 양상」, 경기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7.
최진, 「가야금산조 경드름의 음악적 특성 고찰」, 이화여대대학원 박사논문, 2007.

3. 무가

(단행본)

나경수 외, 『곡성군 마을굿』,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광양시 마을굿』,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구례군 마을굿』,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담양군 마을굿』,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장성군 마을굿』,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진도군 마을굿』,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호남의 망자환갑굿』,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화순군 마을굿』, 민속원, 2007.
박미경, 박주언, 『진도 세습무 박씨가계도 재구성 연구』, 민속원, 2007.
양종승, 『서울 이태원 부군당굿』, 민속원, 2007.
윤동환, 『동해안 필사본 무가 한국의 무가11』, 민속원, 2007.
이경엽 외, 『여수영당, 풍어굿, 악곡청』, 민속원, 2007.
천혜숙, 『동해안 마을의 신당과 제의』, 민속원, 2007.
홍태한,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 민속원, 2007.

(소논문)

김미숙,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집'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안상경, 「계룡산 산신제의 역사성과 구비성 연구」, 『구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이수자, 제주도 '송당 신화 축제'의 의의와 계승의 필요성」, 『구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최원오, 「한국 무속신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점검-스토리 창작을 위한 신화소 추출과 분류 및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46집, 한국문학회, 2007.
홍태한, 서울 마을굿의 축제적 성격」, 『구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www.kci.go.kr

2007.(마을굿의 축제적 성격)
황루시,「강릉지역 여서낭신화 연구 ,『구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학위논문)
김민찬,「제주 서사무가의 문화수용 양상」, 제주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민윤숙,「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식성갈등 연구」, 안동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윤용준,「동해안 별신굿의 동살풀이 장단 연구」, 단국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이영금,「전북지역 무당굿 연구 : 정읍 세습무 전금순 굿을 중심으로」, 전북대대학원 박사논문, 2007.
이영선,「동해안별신굿 무악장단 연구 : 세존굿의 삼오장장단을 중심으로」, 단국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장국강,「한국과 중국의 무속신 비교연구 : 동해안 별신굿과 환단신을 중심으로」, 경상대대학원 박사논문, 2007.

4. 판소리
(단행본)
김동건·김진영·차충환,『판소리문화사전』, 박이정, 2007.

(소논문)
김경희,「<춘향가>를 통해 본 김소희 판소리의 음악적 지향」,『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김기형,「명창설화의 전승양상과 의미」,『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김기형,「판소리경연대회와 축제」,『구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김동건,「신자료 <호남기담> 연구」,『판소리연구』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김동건,「장편화 방식을 통해 본 홍윤표소장 154장본 <춘향전>의 성격」,『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김연,「창작판소리 발전과정 연구」,『판소리연구』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김인숙,「명창 김여란의 판소리관과 예술세계」,『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김진영,「지역 문화로서의 보성 판소리 발전 방향」,『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김현주,「판소리 연행에서의 공간 침범과 전위의 문제」,『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김현주,「판소리에서 감각 패턴의 연행적 기능과 의미」,『판소리연구』제24집, 판소

www.kci.go.kr

리학회, 2007.
류수열, 「<별주부전>의 교육적 체험을 위한 하이퍼픽션 구축방안 연구」, 『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배연형, 「김연수의 판소리 사설, 그 생명력의 원천」, 『판소리연구』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배연형, 「보성소리 장재백 춘향가의 형성과정」, 『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서유석, 「20세기 초반 활자본 춘향전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서정민, 「정응민 <수궁가> 중 초입 네 대목 연구 , 『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서종문, 「판소리 단가에 나타난 신재효의 세계인식」, 『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손태도, 「지역 문화로서의 고창 판소리 발전 방안」, 『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손태도, 「판소리 계통 공연 예술들을 통해 본 오늘날 판소리의 나아갈 길」, 『판소리연구』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오윤선, 「<춘향전> 영역본의 고찰」, 『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유제호, 「춤·소리의 융합 장르 모색」, 『판소리연구』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이명진, 「19세기 후반 신재효의 자기인식과 소속집단에 대한 희화화」, 『판소리연구』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이보형, 「유파 개념 중고제와 악조 개념 중고제」, 『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이유진, 「판소리 <심청가>의 형성에 대한 재론」, 『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이윤선, 「연행방식을 통해서 본 남도소리의 축제적 성격」, 『구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이태화, 「20세기 초 협률사 관련 명칭과 그 개념」, 『판소리연구』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정병헌, 「보성소리의 판소리사적 위상」, 『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정충권, 「<적벽가>의 형성과 난리 체험 , 『판소리연구』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최동현, 「명창 김이수의 생애와 예술」, 『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최영희, 「1960년대 '춘향' 영화 연구」, 『판소리연구』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최혜진, 「김소희 바디 <춘향가>의 성립과 변화 양상 , 『판소리연구』제23집, 판소리학회, 2007.

www.kci.go.kr

황혜진,「판소리의 매체교육적 의의 ,『판소리연구』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학위논문)
권은경,「판소리 장단의 달고 맺음에 관한 연구 : 자진모리장단을 중심으로」, 전북대대학원, 2007.
김은영,「판소리 홍보가 <가난타령>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박노훈, 이선유 판소리 창본 『오가전집』에 관한 연구 :저작 겸 발행자 김택수를 중심으로」, 중앙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신은주,「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바디 연구 , 서울대대학원 박사논문, 2007.
안현미, 판소리 <수궁가>에 대한 연구 : 박초월·정권진 소리를 중심으로」, 단국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양옥경,「판소리 <적벽가> 첨입대목의 음악적 구현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07.
정혜원,「한국 전통연극 진흥정책 연구」, 중앙대대학원 박사논문, 2007.
조용수,「판소리 고법의 리듬에 관한 연구 : 김동준·김득수의 중중모리를 중심으로」, 중앙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5. 민속극

(단행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민속학연구소,『범성포 단오제』, 월인, 2007.
곽병창,『연희극 축제』, 월인, 2007.
국사편찬위원회,『천민예인의 삶과 예술의 궤적』, 두산동아, 2007.
김명자,『1980년대 서산, 태안지역 조사자료 한국세시풍속Ⅱ』, 민속원, 2007.
김호석,『강령탈춤 음악본』, 민속원, 2007.
심상교,『한국 전통연희론』, 집문당, 2007.
심우성,『전통문화를 찾아서』, 동문선, 2007.
이상해·정승모,『하회마을』, 솔, 2007.
전경욱,『한국의 가면극』, 열화당, 2007.
정병훈,『진주 오광대 탈놀음』, 지식산업사, 2007.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우리의 놀이문화 원형을 찾아서88-탈놀이』, 아툰즈, 2007.

(소논문)
권은영,「여성농악단을 통해 본 근대 연예농악의 양상」,『실천민속학』10호, 실천민속학회, 2007.
전경욱,「해서탈춤의 악사와 재인촌 ,『구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www.kci.go.kr

6. 현대의 구비문학

(단행본)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대중문학 주변부의 반란』, 민속원, 2007.

(소논문)

강현구, 「아동용(가정용) TV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경쟁력」, 『대중서사연구』 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김경희, 「현대의 아동극에 나타난 이야기꾼과 이야기 마당」, 『구비문학연구』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김웅래, 「코미디의 숙명과 코너의 수명」, 『웃음문화』제3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김재화, 「코미디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행복감 증진효과 연구-풍자코미디를 중심으로」, 『웃음문화』제3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김종군, 금자탑, 세계대통령이 되다-탑골공원 이야기꾼 김한유의 만담가적 특성」, 『웃음문화』4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김창남, 「민중가요의 대중음악사적 의의」, 『민족문화논총』35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7(기획 특집 :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모색과 전망)

박애경, 「1940년대 군국가요에 나타난 젠더 이미지와 젠더 정치」, 『민족문화논총』 35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7(기획 특집 :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모색과 전망)

박영정, 「초기 근대희극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웃음문화』제3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박준흠,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인디음악이 갖는 의미」, 『민족문화논총』35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7(기획 특집 :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모색과 전망)

백현미, 「1950년대 여성국극의 성정치성」, 『대중서사연구』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사진실, 「마당놀이 관객의 '웃음으로 하나 되기'-마당놀이 <변강쇠>를 중심으로」, 『웃음문화』제3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신상훈, 「한국형 스탠드 업 코미디 만들기 , 『웃음문화』제3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심우장, TV 속 이야기판과 웃음-토크쇼 <야심만만>, <불량아빠클럽>, <놀러와>를 중심으로」, 『웃음문화』제3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이동순, 「1950년대 한국대중음악사의 형성과 전쟁 테마의 수용(Ⅰ)], 『민족문화논총』35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7(기획 특집 : 한국 대중음악사의

www.kci.go.kr

새로운 모색과 전망)
이소영,「195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이국성」,『대중서사연구』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이소영,「갈래간 경계넘기와 음악의 혼종성-김송규의 신민요를 중심으로」,『민족문화논총』35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7(기획 특집 :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모색과 전망)
이영미,「방송극 주제가의 인기 경향과 흐름」,『민족문화논총』35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7(기획 특집 :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모색과 전망)
장유정,「대중가요를 통해 본 1960년대의 서울문화」,『민족문화논총』35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7(기획 특집 :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모색과 전망)
장유정, 대중매체의 출현과 음악문화의 변모양상-라디오와 유성기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학위논문)
나주연,「게임의 구비문학 활용과 그 가치 , 건국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27
신호성,「문화콘텐츠로서의 <아랑전설> , 고려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정승기,「사용자 제작 컨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구비 문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석사논문, 2007.
최은숙,「20세기 전반기 대중가요 담론의 쟁점과 의의」,『한국민요학』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7. 해외의 구비문학
(단행본)
김순희,『중국의 탈놀이 대두화상』, 한국학술정보, 2007.
센덴자빈 돌람 지음, 이평래 옮김,『몽골 신화의 형상』, 태학사, 2007년 8월.
이춘근,『러시아 민속문화』, 민속원, 2007.
최용수 외,『아시아의 무속과 춤-일본·인도』, 민속원, 2007.
최용수 외,『아시아의 무속과 춤-중국』, 민속원, 2007.
테.남질 저, 이안나 옮김,『몽골의 가정예절과 전통』, 민속원, 2007.
편집부,『세계희귀민속문화』, 대원사, 2007.
한스 요아힘 파프로트 지음, 강정원 옮김,『퉁구스족의 곰 의례』, 태학사, 2007.

(소논문)
남성호,「일본 축제에 나타난 신들림의 표상화(I)-무속, 슈겐도를 중심으로」,『구

www.kci.go.kr

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박영산, 『구비전승문예의 비교 연구 : 한국의 판소리와 일본의 조루리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7.
박환영, 「몽골의 나담 축제와 유래담 고찰 , 『구비문학연구』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www.kci.go.kr